

2010학년도 중등교사신규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도덕 · 윤리

1차 시험	2 교시 (전공)	40문항 80점	시험 시간 120 분
-------	-----------	----------	-------------

- 문제지 전체 면수가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 문항의 배점이 1.5점과 2.5점인 문항에는 배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문항은 2점입니다.
- 각 문항의 정답을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사용하여 OMR 답안지에 표시하십시오.

1. 다음은 어느 고등학생의 가치 원리에 대한 입장을 진술한 글이다. <보기>의 가치 분석 수업 중 4단계의 밑줄 친 부분에서 교사의 발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수는 어느 날 반 대항 농구 경기에서 반 대표 선수로 뛰게 되었다. 그는 어떻게든 경기에서 이기는 것이 좋다고 보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실적 근거를 제시했다. 이는 규칙을 어기면서라도 경기에 승리하는 것이 옳다는 가치 원리를 표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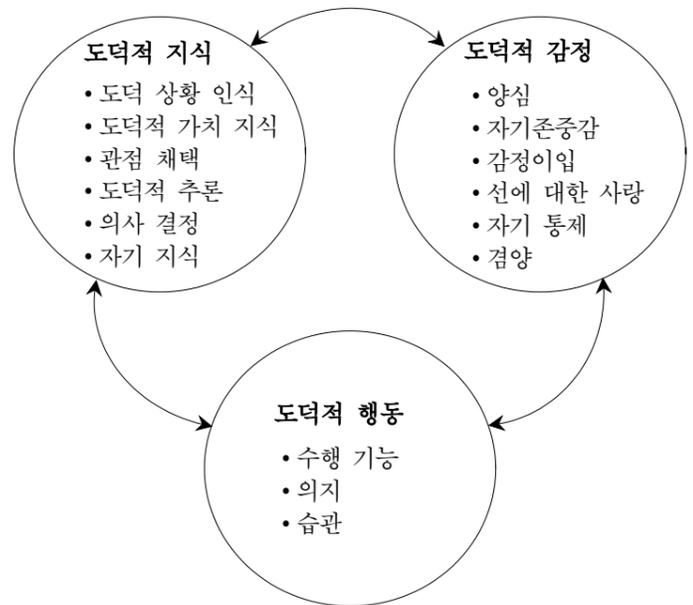
—<보 기>—

- 1 단계 : 도덕적 문제 사태의 제시
- 2 단계 : 가치 문제의 확인과 명료화
- 3 단계 : 자기 입장의 선택 및 사실적 타당성 탐색
- 4 단계 : 잠정적 가치 판단 및 가치 원리 수용성 검사
- 5 단계 : 입장의 수정 및 의사 결정
- 6 단계 : 실천 동기 강화 및 일상 생활에의 확대 적용

- ① 그 가치 원리가 “운동 선수는 정정당당하게 경기하는 스포츠맨십을 가져야 한다.”는 상위 원리로부터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연역될 수 있는가?
- ② 축구 경기처럼 농구 경기에서도 심판으로 하여금 오판을 불러 일으키려는 과잉 행동을 규칙 위반으로 생각하는가?
- ③ 만약 누구나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 규칙 위반을 서슴치 않는다면, 그 결과를 수용할 수 있겠는가?
- ④ 국제 경기에서 약물 복용 후 경기에 임하여 우승한 선수가 있을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겠는가?
- ⑤ 상대 팀의 교묘한 반칙으로 우리 팀이 패했을 경우에도 이를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2. 다음을 제시한 학자의 주장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훌륭한 인격의 구성 요소>—



—<보 기>—

- ㄱ. 선을 사랑하는 사람, 즉 선한 행위에서 즐거움을 맛보는 사람은 의무의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또래 지도와 봉사 활동을 통해 잘 계발될 수 있다.
- ㄴ. 인격의 발달은 주어진 상황에서 가치가 도덕적인 방식으로 반응하려는 믿을만한 내적 경향성을 지닐 때 이루어진다.
- ㄷ. 가치명료화와 합리적 의사결정 모형은 특정 가치들을 가르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인격교육의 방법에서 제외된다.
- ㄹ. 존중과 책임은, 가치가 갈등하는 다원적 사회에서 학교가 가르쳐야 할 보편적이며 객관적인 도덕적 가치이다.
- ㅁ. 성숙한 양심은 건전한 죄의식을 포함하며, 높은 자기존중감만으로는 훌륭한 인격이 보장되지 않는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ㄷ, ㅁ ⑤ ㄴ, ㄹ, ㅁ

3. 다음은 도덕교육의 일면적 접근의 지양을 강조하는 주장들이다. (가)~(라)에 해당되지 않는 학자는?

(가) 도덕교육은 이중의 과업을 필요로 한다. 즉, 선악에 대한 지식과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관한 지식을 가르치는 도덕교육(MEX)과 이러한 지식을 실천할 수 있게 가르치는 도덕교육(MEY)을 필요로 한다.
 (나) 도덕성은 '감정과 행동의 습관'에 기초한 도덕성과 '도덕적 기준의 반성적 적용'에 기초한 도덕성으로 구분된다. 과도한 완전성을 추구하는 반성적 도덕성은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다) 습관화는 교육의 두 단계 중 첫 번째 단계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습관과 전통의 틀을 지나서 이성의 궁전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들어가야 한다.
 (라) 포괄적 가치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기법들은 '주입하기', '모델링하기', '촉진하기', '가치 발달과 도덕적 소양을 위한 기능' 등의 영역으로 분류된다.

- ① 셀만(R. L. Selman) ② 피터스(R. S. Peters)
- ③ 프랑케나(W. Frankena) ④ 오크쇼트(M. Oakeshott)
- ⑤ 커센바움(H. Kirschenbaum)

4. 다음을 제시한 도덕교육 방법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KRAT¹⁾(1)(RA)²⁾ 도덕적 문제인가를 타당하게 인식하기
 KRAT(1)(TT)³⁾ 도덕적 문제에 대해 철저히 사고하기
 KRAT(1)(OPU)⁴⁾ 도덕적 문제를 정당하게 판단하고 결정하기
 KRAT(2) 도덕적 문제에 대한 판단과 결정대로 행동하기

1) (G) kratos
 2) relevantly alert
 3) thinking thoroughly
 4) overriding, prescriptive, universalized

- ① 도덕성을 규범적 개념이라기보다는 논리적이고 형식적인 개념으로 보고자 한다.
- ② '도덕적 문제를 정당하게 판단하고 결정하기'에는 도덕 원리의 특성으로 인정되는 요소들이 들어 있다.
- ③ 교사는 사회적 규범을 내면화시키기보다는 도덕 문제 해결에 요구되는 절차 혹은 구성 요소를 가르쳐야 한다.
- ④ 교사는 학생들이 가치판단과 의사결정 과정을 스스로 익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
- ⑤ 교사는 도덕성 구성 요소의 이론적 배경에 관한 철학적 이해와 교재를 개발하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5. (나)는 (가)를 읽고 작성한 어느 교사의 연구 논문 계획서의 일부이다. ()안의 ㉠~㉣에 들어갈 적절한 용어를 고른 것은?

[2.5점]

(가) 도덕과 평가에서 도덕성의 인지적·정의적·행동적 영역을 떼어 놓고 각각의 영역을 별개의 평가 방법과 준거에 의해 측정된 후, 그 결과를 합산하는 (㉠) 방식의 평가를 지향한다면, 통합된 전체로서의 도덕성이나 인격의 의미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그 무엇을 평가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나) 그러면 그와 같은 평가 방식을 지양하면서도 통합적 도덕성이나 인격을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은 무엇일까? 먼저, 새로운 평가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선결 과제가 필요하다.
 하나는 인격에 대한 과도한 오해를 불러 일으켰던 이른바 (㉡)의 교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근거를 명확히 하는 일이다. 이 교의는 핫슨(H. Hartshorne)과 메이(M. May)의 다음 주장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즉, "선함이나 인격에 의해 의도된 것이 행동으로 관찰되거나 측정될 수 있어도 선함 혹은 인격의 특질에 대한 증거가 없다. [...중략...] 어떠한 행위도 상황들의 상호작용과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내적 습관 체제나 능력에 기인하지 않는다."는 바로 그것이다.
 다른 하나는 여러 조각들의 조합으로 정의되고 있는 도덕성이나 인격을 일관되고 응집된 전체로서 파악할 수 있게 해 주는 핵심 개념을 찾아내는 일이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 개념들 가운데 (㉢)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것은 인지와 동기를 결합시키기 때문에 도덕적 인지와 도덕적 행동을 연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것은 도덕적 영역을 자신의 본질적 부분으로 보는 시각을 지지하는 환경에서, 그리고 그 시각이 공고해지며 일관될 수 있게끔 자기 반성이 촉진될 때 형성·강화된다.

- | | | | |
|---|------|--------|---------|
| | ㉠ | ㉡ | ㉢ |
| ① | 자연주의 | 도덕 감수성 | 도덕적 합당성 |
| ② | 환원주의 | 도덕 감수성 | 도덕적 합당성 |
| ③ | 구성주의 | 상황 특수성 | 도덕적 상상력 |
| ④ | 환원주의 | 상황 특수성 | 도덕적 정체성 |
| ⑤ | 구성주의 | 도덕 감수성 | 도덕적 정체성 |

6. 다음 대화에서 '2007년 개정 중학교 도덕과 교육과정'에 대해 바르게 말하고 있는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

갑 : 도덕과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윤리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다양한 도덕적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을 : 제7차 교육과정과 동일하게 학교급별 목표의 위계성을 부각 시키면서, 도덕과 목표를 교과 목표와 학교급별 목표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어요.
 병 : 내용이 성취 기준형 방식으로 진술되어 있어서, 이 점을 잘 활용하면 평가할 때 상호 주관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겠어요.
 정 : 도덕적 주제를 중심으로 가치관계 확장에 따라 4개의 내용 영역을 설정하고, 내용 요소를 주제 중심으로 잘 구성하고 있네요.

- ① 갑, 을 ② 갑, 정 ③ 을, 병
 ④ 갑, 병, 정 ⑤ 을, 병, 정

7. 다음은 콜버그(L. Kohlberg)가 주장한 도덕성 발달 단계 가운데 일부 단계별 특징을 각각 정의한 것이다. 각 단계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5점]

(가) 옳은 행동은 주어진 의무를 다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나) 옳은 행동은 자신의 욕구나 타인의 욕구를 도구적으로 만족시켜 주는 것이다.
 (다) 옳은 행동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도와주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 받는 것이다.
 (라) 옳은 행동은 일반적인 개인 권리에 준해서 사회가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합의한 표준에 일치하는 것이다.

- ① 낮은 단계부터 높은 단계로 배열하면 (나)—(다)—(라)—(가)이다.
 ② (가)단계에 속한 사람은 개인의 기본권이나 공익을 침해하는 법에 도전하거나 불복한다.
 ③ (나)단계에 속한 사람의 도덕성 발달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가)단계의 도덕적 추론에 노출시키는 것이다.
 ④ (다)단계에서는 당신이 내 등을 긁어주면 나도 당신의 등을 긁어 주겠다는 식으로 상호성을 이해한다.
 ⑤ (라)단계에서는 다양한 가치들과 의견이 있다는 것을 알고 대부분의 가치와 규칙이 집단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한다.

8. 다음을 주장하고 있는 도덕심리학자의 견해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인성은 원초아(id), 자아, 초자아로 구성된다.
 ○ 인성은 구강기-항문기-남근기-잠복기-성기기 순서로 발달해 간다.
 ○ 남근기에 부모와의 동일시를 통해서 형성되는 초자아는 양심과 자아이상(ego-ideal)으로 구성된다.

—<보 기>—
 ㄱ. 5~6 세 이전에 양육 받은 경험이 인성 발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ㄴ. 욕구의 과잉 충족뿐만 아니라 욕구의 심각한 좌절도 정상적인 인성 발달을 방해한다.
 ㄷ. 초자아는 현실 원리에 따라 원초아와 외부 세계의 요구를 절충하여 욕구를 지연하고 좌절을 감내하도록 도와준다.
 ㄹ. 죄책감은 자기 자신이 누군가에게 손해나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할 때 느끼는 인간 관계적 고통을 통해 형성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9. 다음 주장을 한 도덕교육학자가 제시한 교사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교육 내용은 배려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새롭게 조직되어야 한다.
 ○ 도덕교육의 주요 방법은 모델링, 대화, 실천, 확인(confirmation) 등이다.
 ○ 도덕교육의 목적은 배려를 유지하고 강화시켜주는 윤리적 이상의 고양에 있다.

- ① 배려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배려받는 방법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② 봉사 활동, 협동 학습 등을 통하여 배려를 실천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 준다.
 ③ 도덕적 원리나 도덕적 추론 능력의 발달을 위한 대화나 토론 기회를 많이 제공해 준다.
 ④ 평가 제도, 처벌 방법, 학교 규칙 등을 포함한 학교의 제도와 구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한다.
 ⑤ 논쟁적인 대화보다는 사람들 간의 상호 이해나 관계 증진을 위한 일상적인 대화를 중시한다.

10. 다음 도덕교육 이론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사회적 지식은 도덕적 영역, 인습적 영역, 개인적 영역으로 구분된다.
- 도덕적 규칙은 복지, 정의, 권리 등에 관한 것으로 절대적이며 보편적이다.
- 인습적 규칙은 구성원들의 행동에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조직에 따라 상대적이다.

—<보 기>—

- ㄱ. 낙태나 동성애를 인습적 영역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문제로 본다.
- ㄴ. 교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음주나 흡연을 한 학생을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
- ㄷ. 인습적 사고와 도덕적 사고는 아동기에서는 서로 혼합되어 있다가 발달하면서 점차 분리되어 간다고 본다.
- ㄹ. 사회적 인습이나 제도적 관행상 옳은 행동으로 인정되더라도 도덕적 영역에서는 나쁜 행동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1. 다음 글에 나타난 도덕교육 방법으로 옳은 것은?

- 옛 문인들의 자질이나 병통(病痛)이 만 가지로 다르므로, 재주에 따라 가르침을 베풀고 증세에 따라서 약을 쓰는 것이다.
- 배우려는 자가 가르침을 묻고 청하면 그 자질의 얕고 깊음에 따라 가르쳐 주고, 만약 깨닫지 못하는 곳이 있으면 거듭 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깨우쳐 주고야 그쳤다.

- ① 격물이교(格物異敎)
- ② 거경치지(居敬致知)
- ③ 성의정심(誠意正心)
- ④ 격물시교(格物施教)
- ⑤ 수인이교(隨人異敎)

12. 다음을 주장한 윤리 사상가의 도덕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만일 덕이 정신적인 것 중의 하나이고 유익한 것에 틀림 없다면, 덕은 마땅히 지혜여야만 한다. 왜냐하면 정신적인 모든 성질들은 그 자체만으로는 유익하지도 해롭지도 않지만, 지혜를 동반하는가 아니면 어리석음을 동반하는가에 따라 해롭게도 유익하게도 되기 때문이다.
- 어느 누구도 선(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 고의적으로 악(나쁜 것)을 행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선이 아닌 것(악)을 선으로 잘못 알고 악을 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악은 무지에서 기인하는 것이지, 고의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보 기>—

- ㄱ. 도덕교육 방법으로 대화법이 중시된다.
- ㄴ. 지혜는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깨우치는 것이다.
- ㄷ. 선에 관한 지식은 행동을 유도하는 동기 유발의 힘을 지니고 있다.
- ㄹ. 의지의 나약함으로 인한 도덕적 실패는 좋은 습관에 의해서 극복된다.

-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13. 다음 구절이 설명하는 유학(儒學)의 개념어에 대한 내용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2.5점]

- 오직 (이것)한 사람이라야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다.
- 듣기 좋게 교묘히 말하고 얼굴 표정을 잘 꾸미는 사람에게는 (이것)이/가 드물다.

—<보 기>—

- ㄱ. 공자는 『논어』에서 (이것)을/를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ㄴ. 공자는 널리 은덕을 베풀어 대중을 구제할 수 있으면 (이것)을/를 넘어 성(聖)이라 설명한다.
- ㄷ. 맹자는 (이것)을/를 사람의 마음[人心]이라 설명한다.
- ㄹ. 주희는 (이것)을/를 마음의 이치와 사랑의 덕이라 설명한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4.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1.5점]

사단(四端)은 모두 선한 것이고 [...중략...] 칠정(七情)은 선악이 미정인 것입니다. [...중략...] 두 가지가 다 이기(理氣)를 벗어나지 않을 지라도 그 소종래(所從來)로 말미암아 각각 그 소주(所主)와 소중(所重)을 가리켜 말한다면, 어느 것은 이(理)이고 어느 것은 기(氣)라 함이 어찌 불가하겠습니까?

—<보 기>—
 가. 이(理)의 작용(作用)을 인정한다.
 나. 이(理)는 사물에 명령하기만 하고 명령을 받지 않는다.
 다. 사단과 칠정을 각각 이발(理發)과 기발(氣發)로 설명할 수 있다.
 라. 정(情)이 발할 때는 이(理)가 움직여[動] 기가 갖추어지기도 하고, 기가 감응하여 이(理)가 타기도 한다.
 마. 마음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未發]에서는 정(靜)을, 이미 일어난 상황[已發]에서는 경(敬)을 강조한다.

- ① 가, 나, 다 ② 가, 나, 마 ③ 가, 다, 라
 ④ 나, 라, 마 ⑤ 다, 라, 마

15. 다음은 어느 사상가의 주장이다. ()에 들어갈 공통된 용어와 이에 대한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은 형이상의 도(道)이며, 음양은 형이하의 기(氣)이다. 그러므로 그 드러나는 것에서 보면 동(動)과 정(靜)은 서로 때를 같이하지 않고 음과 양은 서로 자리를 같이하지 않지만, ()은 존재하지 않음이 없다.

—<보 기>—
 가. 우리 인간 내부에도 존재한다.
 나. 천지만물의 이(理)를 총괄한다.
 다. 논리적, 실제적 측면에서 음양에 앞선다.
 라. 변화의 근원이며, 만물[品彙]의 지도리[樞紐]이다.

- ① 태극 - 가, 다
 ② 무극 - 나, 다
 ③ 태극 - 다, 라
 ④ 무극 - 가, 나, 다
 ⑤ 태극 - 가, 나, 라

16. 다음 설명에 가장 적절하게 부합하는 유가사상의 개념어는?

진화는 유전자들의 생존 경쟁으로 파악될 수 있다. 유전적으로 가까운 혈연을 돕고자 하는 성향, 이것이 바로 맹목성 이타주의(hard-core altruism)의 기초를 이룬다. 만약 2명의 자식, 4명의 조카, 또는 8명의 사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목숨을 내걸어도 유전자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것이다.

- ① 애물(愛物)
 ② 친친(親親)
 ③ 인민(仁民)
 ④ 친민(親民)
 ⑤ 신민(新民)

17.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의로움은 곧 이로움이다[義, 利也].
 ○ 남을 사랑하면 그도 반드시 좇아서 나를 사랑하며, 남을 이롭게 해주면 그도 반드시 좇아서 나를 이롭게 한다.
 ○ 세상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것은 일으켜 세우고, 세상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것은 제거한다[興天下之利, 除天下之害].

- ① 도덕을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본다.
 ② 진리를 검증하는 세 가지 표준[三表]을 제시한다.
 ③ 능력에 따라 평등하게 관리를 선발하자고 주장한다.
 ④ 주공(周公)을 가장 이상적인 정치적 모범으로 삼는다.
 ⑤ 의지를 가진 최고의 주재자를 가리켜 하늘[天]이라고 한다.

18. 다음의 ㉠~㉣에 들어갈 개념을 순서 대로 바르게 배열해 놓은 것은?

○ 형체를 잊고[墮肢體] 마음을 잊어[黜聰明], 감성적 지각작용[形]을 떠나고 이성적 분별작용[知]을 버린다면, 도(道)와 한 몸을 이뤄 두루 통하게 된다. 이것을 (㉠) (이)라고 한다.
 ○ 너의 뜻을 하나로 통일하여,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라! 마음으로만 듣지 말고 기(氣)로써 듣도록 해라! 귀는 듣는 것에서 그치고, 마음은 바깥 사물과 부합하는 데서 그치지만, 기라는 것은 텅 비움으로써 바깥 사물을 있는 그대로 맞아 들인다. 도는 오로지 텅 비우는 곳에 모이는 법이다. 이처럼 텅 비우는 경지에 이르는 것을 (㉡) (이)라고 한다.
 ○ 형체는 마치 바짝 마른 장작[槁木]처럼 만들고, 마음은 마치 싸늘히 식어 버린 재[死灰]처럼 만들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선생님께서 책상에 기대고 계신 모습은 예전과는 사뭇 다릅니다. [...중략...] 나는 지금 (㉢) 하였는데, 너는 이것을 아는가?

- | | | | |
|---|--------|--------|--------|
| | ㉠ | ㉡ | ㉢ |
| ① | 좌망(坐忘) | 심재(心齋) | 상아(喪我) |
| ② | 상아(喪我) | 좌망(坐忘) | 심재(心齋) |
| ③ | 심재(心齋) | 상아(喪我) | 좌망(坐忘) |
| ④ | 상아(喪我) | 심재(心齋) | 좌망(坐忘) |
| ⑤ | 심재(心齋) | 좌망(坐忘) | 상아(喪我) |

19. 다음 밑줄 친 '이것'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고행에 의해 깨달음을 얻으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몸을 고통스럽게 하는 고행에 전심하는 것은 욕락(慾樂)의 생활에 빠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래의 수행이나 깨달음에 하등의 도움도 되지 않는다. 올바른 깨달음에의 길은 고행이나 욕락과 같은 극단을 피하고 심신의 조화를 얻는 '이것'의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면 안 된다. 나는 무익한 고행을 버리고 합리적인 '이것'의 수행법에 의해 올바른 세계관·인생관을 확립하여 진실로 동요하지 않는 경지에 도달하여 불타(佛陀)가 된 것이다.

—<보 기>—

ㄱ. 팔정도(八正道)를 가리킨다.
 ㄴ. 열반에 도달하기 위한 수행 방법이다.
 ㄷ. 원시불교에서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ㄹ. 멸성제(滅聖諦)는 '이것'의 원인[因]이다.

- | | | |
|-----------|-----------|-----------|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ㄱ, ㄴ, ㄷ |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 |

20. 다음 ㉠, ㉡에 들어갈 개념으로 옳은 것은?

엄한 집안에는 사나운 노비가 없지만 자애로운 어머니 밑에는 못된 자식이 있다. 이로써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위세(威勢)가 난폭함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요, 덕망(德望)과 관후(寬厚)가 난(亂)을 그치는 데 부족하다는 것이다. 성인(聖人)은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사람들이 스스로 선(善)을 행하도록 내맡기지 않는다. 그는 그들이 악(惡)을 행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 스스로 선을 행하도록 내맡겨도 될 사람 열 명을 온 나라를 뒤져도 찾아내기 어렵지만, 백성들이 악을 행할 수 없게 한다면 나라는 잘 다스려질 수 있다. 군왕은 다수의 민중에게 관심을 가질 것이요, 개개인을 염두에 두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에 힘쓰지 않고 (㉡)에 힘쓰는 것이다.

- | | | |
|---|------|------|
| | ㉠ | ㉡ |
| ① | 술(術) | 덕(德) |
| ② | 덕(德) | 법(法) |
| ③ | 법(法) | 세(勢) |
| ④ | 덕(德) | 술(術) |
| ⑤ | 술(術) | 법(法) |

21. 다음은 어느 사상가의 주장이다.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중관론(中觀論) 등은 깨뜨리고 깨뜨려 세울 길이 없으니, 이것은 가기만 하고 두루 하지 못하는 논(論)이요, ㉡유식론(唯識論) 등은 세우고 세워서 깨뜨릴 길이 없으니, 이것은 주기만 하고 빼앗을 줄 모르는 논이다.
 ○ 세우지 않음이 없으면서 스스로 빼앗아 버리고, 깨뜨리지 않음이 없으면서 여전히 허용한다. 궁극적으로는 주면서 빼앗는다. ㉢이것은 모든 논(宗)이요, 모든 쟁론의 평주(評主)이다.

—<보 기>—

ㄱ. ㉠은 모든 집착을 버리고, 그 주체와 대상을 모두 부정하는 논리를 전개하며, 논리 자체까지도 부정하는 공(空)의 방향으로 나아갔다.
 ㄴ. ㉡은 주관적 인식 대상은 비록 공(空)하지만 인식 자체는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모든 법(法)은 유(有)와 무(無)에 통한다고 하였다.
 ㄷ. ㉢에서 ㉠과 ㉡ 두 학파의 대립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도리[一心二門]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ㄹ. ㉣은 원효의 저술로서 『대승기신론』을 가리킨다.

- | | | |
|-----------|-----------|-----------|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ㄱ, ㄴ, ㄷ |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 |

22.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윤리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쾌락은 우리에게 최우선적으로 주어진 자연적인 재화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쾌락 때문에 더 큰 불쾌가 초래될 위험이 있을 경우에 우리는 많은 쾌락들을 지나쳐 버린다. 오랜 고통의 시간 뒤에 보다 큰 쾌락이 뒤따라올 경우에, 우리는 고통을 쾌락보다 높이 평가한다.

○ 모든 불행 중에 가장 끔찍한 불행인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 것도 아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한 죽음은 존재하지 않으며, 죽음이 존재하면 우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죽음은 산 자에게도 죽은 자에게도 아무 관련이 없다. 산 자에게는 죽음이 없으며, 죽은 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 ① 욕심을 줄이고 자족하는 소박한 삶을 강조하였다.
- ② 시민들 사이의 우정과 정치적 의무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 ③ 이성적 사고를 통해서 무지와 불안에서 벗어날 것을 주장하였다.
- ④ 마음의 불안과 육체의 고통이 없는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았다.
- ⑤ 정의란 서로 해를 입히지도 말고 해를 당하지도 말자는 상호 계약이라고 주장하였다.

23. (가)와 (나)는 공리주의의 두 입장이다. (가)의 입장에서 (나)를 비판할 때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가) 공리의 원리를 행위가 아니라 규칙 또는 규칙의 집합에 적용한다. 즉, 먼저 공리의 원리를 적용하여 최대의 수용 공리를 산출하는 규칙의 집합을 결정한 다음, 그 규칙의 집합에 속하는 규칙의 준수 여부에 따라 행위의 옳음과 그름을 판단한다.

(나) 공리의 원리를 행위에 직접 적용하여, 다른 대안들보다 더 많은 공리를 산출하는 행위를 도덕적으로 옳은 것으로 수용한다.

—<보 기>—

ㄱ. 행위가 일반적 관행이 되었을 때의 기대 효과를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ㄴ. 구체적 상황에서 의사결정 절차를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도덕적 갈등 사태를 야기한다.

ㄷ. 상식의 도덕에서 볼 때 명백히 비도덕적인 행위를 도덕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문제가 있다.

ㄹ. 도덕적 결정을 할 때마다 공리의 원리를 적용하여 결과를 계산하는 것은 규칙을 적용하는 것에 비해서 비효율적이다.

-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4. 다음 논증을 제시한 윤리학자의 주장이 아닌 것은? [2.5점]

(1) “X는 선이다(X is good.)”는 “X는 자연적 성질 P를 갖는다.”를 의미한다.

(2) X는 자연적 성질 P를 가졌다. 그러나 X는 선인가?

(3) 선(goodness)에 대한 정의 (1)이 옳다면, (2)는 “X는 자연적 성질 P를 가졌다. 그러나 X는 자연적 성질 P를 가졌는가?”라는 동어반복적 물음이 된다.

(4) 그러나 (2)는 사소한 동어반복이 아니라, 유의미한 열린 물음이다.

(5) 그러므로 선에 대한 정의 (1)은 거짓이다.

- ① 선은 단순 관념이다.
- ② 선은 직관에 의해서 파악된다.
- ③ 선에 대한 판단은 일종의 분석 판단이다.
- ④ 옳은 행위란 선을 극대화하는 실제 결과를 낳는 행위이다.
- ⑤ 자연적 속성에 관한 진술에서 선에 대한 판단을 도출할 수 없다.

25. (가)의 입장에서 (나)를 비판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정의는 각자의 차이에 비례하여 ‘같은 경우는 같게, 다른 경우는 다르게’ 대하는 것이다. 명백히 같은 경우를 다르게 대하고 명백히 다른 경우를 같게 대하는 데서 부정의가 생겨난다. 환경 문제에 있어서도 이 정의의 원칙은 적용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오염자 부담의 원칙’은 정의의 요구를 반영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나) 현재 환경 위기의 근본 원인은 인간중심주의적 세계관에 기초한 인간의 자연 지배이다. 인간을 모든 가치의 기원이자 척도로 간주하는 인간중심주의는 인간의 오만함을 낳았고, 이로 인해 무분별한 자연 파괴를 가능하게 하였다. 심층 생태학(deep ecology)은 이러한 인간중심주의적 세계관의 근본적 변혁을 요구한다. 인간에 의한 자연 지배가 사라지지 않는 한, 환경 위기의 극복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인간의 자연에 대한 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전지구적 차원에서 인구의 근본적인 감소가 필요하다.

- ① 인간중심주의에서 생태중심주의로의 급격한 변혁은 생태 파시즘(eco-fascism)을 초래할 수 있다.
- ② 환경 파괴의 책임을 묻는 데 있어서 인간들 사이의 책임의 차이를 무시한다.
- ③ 도덕적 책임의 주체인 인간과 책임의 대상인 자연의 차이를 간과하고 있다.
- ④ 생명체들 간에 존재하는 생명 가치의 질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 ⑤ 인간이 자연의 관리자라는 사실을 잊고 있다.

30. 다음은 고대 서양 사상가의 원전의 한 부분이다. ()의 ㉠~㉣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용어들을 바르게 배열한 것은?

탁월성은 감정과 행위에 관련하고, 이것들이 자발적인 경우에는 칭찬과 비난이 가해지지만 비자발적인 경우에는 용서가, 경우에 따라서는 연민까지 생겨난다. (㉠)에 의해, 혹은 (㉡) (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은 비자발적인 것으로 보인다. 가령 바람이 불어서 어디론가 움직이게 한다거나 그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론가 데려가는 경우이다. [...중략...] 그런데 (㉢) (으)로 말미암은 모든 것은 '내켜서 자발적으로 하지는 않은 것'이지만, 고통을 동반하고 후회를 일으킨다면 '마지못해 비자발적으로 한 것'이다. [...중략...] (㉣) (으)로 말미암은 것을 비자발적인 것이라는 주장은 아마 옳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만약 그렇다면 다른 동물들 중 어떤 것도 자발적으로 행위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되며 아이들조차 그럴 것이기 때문이다.

- | | | | |
|---|-----|----|--------|
| | ㉠ | ㉡ | ㉢ |
| ① | 힘 | 무지 | 분노나 욕망 |
| ② | 욕망 | 무지 | 강요나 강제 |
| ③ | 무지 | 탐욕 | 분노나 욕망 |
| ④ | 부정의 | 욕망 | 정의나 용기 |
| ⑤ | 부정의 | 힘 | 정의나 용기 |

31. 다음을 주장한 근대 사상가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인간은 자연인으로 태어났지만 어디서나 쇠사슬에 묶여 있다.
○ 자유로운 시민은 복종은 하지만 예종(隸從)하지는 않으며, 지도자를 두지만 주인을 두지는 않는다.
○ 자연인은 사회적 제약이 없는 상태에서 '완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 생존하는' 자기 목적적인 존재이다.

- ① 국가는 자연적 창조물이며, 완성된 형태의 공동체이다.
- ② 국가는 절대적 권위와 더불어 신성한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장치이다.
- ③ 국가는 자연권을 포기한 개인이 계약을 통해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는 수단이다.
- ④ 국가는 후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약을 통해 공공 이익을 실현하는 기제이다.
- ⑤ 국가는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수단으로서 최소 기능만을 수행하는 기제이다.

32. 남한의 대북 정책을 다음의 두 관점에서 연구하고자 할 때, (가), (나)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1.5점]

정책 목표	자유 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	남북한 평화 공존
정책 기조	○북한에 대한 봉쇄 ○북한 체제의 무력화(無力化)	○북한에 대한 포용 ○북한의 정상(正常) 국가화
정책 방안	(가)	(나)

<보 기>

ㄱ. (가) -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추구한다.
 ㄴ. (가) - 체제 경쟁을 통한 우위를 추구한다.
 ㄷ. (나) -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한다.
 ㄹ. (나) -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은 나라들과 수교하지 않는다.

- | | | |
|-----------|-----------|--------|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 |

33. 다음을 주장한 사회사상가의 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시민들은 누가 자신을 지배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 자본주의 발전의 원동력은 창조적 파괴와 같은 지속적인 기술 혁신에 있다.
○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에는 어떤 필연적 관계는 없다. 다만 성숙한 사회에서는 사회주의와 민주주의가 양립할 수 있다.

- ① 반대보다는 합의를, 배제보다는 포용을 강조하고, 정치 소외 집단을 최소화하는 기제이다.
- ② 정치 엘리트들이 선거를 통해 정치적 지도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자유 경쟁하는 장치이다.
- ③ 공동체 구성원들의 다양한 선호를 결집함으로써 집단적인 정치적 의사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다.
- ④ 정치 과정에 대한 시민들의 직접 참여 및 대화와 토론을 통해 정치적 결정에 도달하는 정부 형태이다.
- ⑤ 시민들이 자신과 관련되는 정치 공동체의 규율과 규제를 형성하는 일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34. 다음 (가)~(라)의 남북한 통합론을 <보기>에서 찾아 바르게 배열한 것은?

- (가) 남북한 간에 적합한 통합 체제 모형의 설정과 이에 대한 남북한 체제의 적극적 수용 의사 및 발전 의지를 중시한다.
- (나) 남북한 간의 스포츠, 문화, 경제, 학문 등 비정치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이 점차 정치적·군사적 분야로 전이된다는 가정을 중시한다.
- (다) 남북한 가운데 어느 일방의 강력한 국력 축적, 세력 불균형에 의한 경쟁의 우위, 주변 국가들을 상대로 한 외교에서의 성공 등을 중시한다.
- (라) 남북한 간의 상이한 체제를 인정하 가운데 1국가 2체제로의 통합을 모색하며, 통합을 지향하는 정치 지도자의 의지, 능력 및 결단력을 중시한다.

<보 기>

ㄱ. 이상주의 통합론	ㄴ. 연방주의 통합론
ㄷ. 수렴론적 통합론	ㄹ. 현실주의 통합론
ㅁ. 기능주의 통합론	ㅂ. 구성주의 통합론

	(가)	(나)	(다)	(라)
①	ㄷ	ㅁ	ㄹ	ㄴ
②	ㄴ	ㅂ	ㄹ	ㄱ
③	ㅁ	ㄴ	ㄱ	ㅂ
④	ㄹ	ㄱ	ㄷ	ㅂ
⑤	ㄷ	ㅁ	ㄴ	ㄱ

35. 다음 (갑), (을)을 주장한 사회사상가의 관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갑) 경제적 안정을 위하여 경제적 자유가 유보될 수 있어야 한다. 시장에서 작동하는 '보이지 않는 손'만으로는 경제적 안정을 실현할 수 없다. 정부의 '보이는 손'의 힘을 빌려야만 경제적 안정을 이룰 수 있다.
- (을) 개인에게 자유를 부여하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한 개개인의 자생적인 협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한 창조와 성장을 실현시킬 수 있다.

- ① (갑)은 사회 안전망의 강화를 중시한다.
- ② (갑)은 시장 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를 강조한다.
- ③ (을)은 개인의 이기심에 의존한 경제 활동을 중시한다.
- ④ (을)은 사적 영역보다 공적 영역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⑤ (갑)은 거시경제지표 관리를, (을)은 시장의 자동 조절 기능을 강조한다.

36. 다음을 주장한 사회사상가의 관점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시냇물은 모든 사람의 것이다. 그러나 주전자 안에 있는 물은 그것을 떠 온 사람의 것이라는 점을 누가 의심할 수 있겠는가. 물은 자연상태에 있을 때는 모든 사람의 공유물이며 또한 모든 자연의 아들들에게 평등하게 속하는 것이지만, 누군가 노동을 통해 그것을 자연으로부터 취하면서 그의 소유가 된다.
- 자연상태는 각자가 자연법의 범위 안에서 자기의 행동을 규율하며 스스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 소유물과 신체를 처리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의 상태이다. 그곳에서는 누구나 똑같은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중략...] 자연상태는 각자가 자연법에 따라 생활하고 있으므로 평화적이고 목가적인 상태이다.

<보 기>

- ㄱ. 인간은 유한하며 잘못을 행할 수 있는 허약한 존재이다.
- ㄴ. 소유권은 사회계약을 통해 획득된 정치 사회의 산물이다.
- ㄷ. 정치 권력은 자연상태로부터 모든 개인의 동의에 의해 성립된다.
- ㄹ. 정치 사회를 만든 목적은 모든 개인이 자기 자신의 자유와 소유물을 보다 잘 보전하기 위해서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37. 다음과 같이 포퍼(K. Popper)의 사상을 도식화할 때, (가), (나)에 각각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적절한 것은?

	닫힌 사회	열린 사회
이념적 기초	유토피아주의	(가)
사회의 개선	혁명적 사회 공학 ▽ 계급 없는 사회가 이상사회이다.	점진적 사회 공학 ▽ (나)

	(가)	(나)
① 비판적 합리주의	미래의 행복을 위한 현재의 희생은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미래의 행복을 위한 현재의 희생은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② 비판적 합리주의	추상적인 선의 구현보다 구체적인 악의 제거가 더 중요하다.	추상적인 선의 구현보다 구체적인 악의 제거가 더 중요하다.
③ 논리실증주의	이상사회의 구현을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이상사회의 구현을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④ 논리실증주의	비과학적인 형이상학은 사회 발전의 장애물이다.	비과학적인 형이상학은 사회 발전의 장애물이다.
⑤ 역사주의	사회 개혁 프로그램은 허위의식이다.	사회 개혁 프로그램은 허위의식이다.

38. 다음 (가), (나)는 남북한이 합의한 문건의 일부 조항들이다. (가), (나)가 각각 포함된 합의 문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 바르게 배열한 것은?

- (가)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나)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중략...]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중략...]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보 기>—

- ㄱ. 분단 이후 남북한 간의 최초의 공동 합의서라는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급변하는 국제 환경에 대한 전술적 적응의 차원에서 남북한 쌍방이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 원칙에 합의하였다.
- ㄴ. 남북한 각각의 내부 절차를 거쳐 발효된 것으로서 남북한 사이의 기본 규범의 성격을 지닌다.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하였다.
- ㄷ.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한 정상이 직접 협상을 통해 합의한 것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이산가족 문제의 인도적 해결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였고, 남북한 사이의 교류와 협력이 보다 현실화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 | | (가) | (나) |
|---|-----|-----|
| ① | ㄱ | ㄴ |
| ② | ㄱ | ㄷ |
| ③ | ㄴ | ㄷ |
| ④ | ㄷ | ㄱ |
| ⑤ | ㄷ | ㄴ |

39. 다음을 주장한 사회사상가의 관점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나의 목적은 사회계약의 전통적 이론을 보다 일반화하고 추상화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원초적 계약을 어떤 사람이 특정 사회를 택하거나 특정 형태의 정부를 세우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핵심적인 생각은 사회의 기본 구조에 대한 정의의 원칙들이 원초적 합의의 대상이라는 점에 있다. 그것은 자신의 이익 증진에 관심을 가진 자유롭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평등한 최초의 입장에서 그들 조직체의 기본 조건을 규정하는 것으로 채택하게 될 원칙들이다.

—<보 기>—

- ㄱ.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기회균등의 원칙보다 우선한다.
- ㄴ. 근로 소득에 대한 과세는 일종의 강제 노동과도 같은 것이다.
- ㄷ. 사회 구성원들의 천부적 재능과 능력은 공동의 자산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 ㄹ. 원초적 입장에 위치한 계약 당사자들은 평균 효용 극대화의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
- ㅁ.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될 때 정당화될 수 있다.

- ① ㄴ, ㄷ ② ㄷ, ㅁ ③ ㄱ, ㄴ, ㄹ
- ④ ㄱ, ㄷ, ㅁ ⑤ ㄷ, ㄹ, ㅁ

40. 다음 글에서 밑줄 친 ㉠을 강조하는 관점을 지닌 사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5점]

북한 체제 구성원들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 보고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시적 구조의 영향과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충분한 관심과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인간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구조나 제도와 유리된 추상적인 것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의 통일교육이 체제 중심의 접근보다는 이른바 ㉠사회·문화 중심의 접근을 취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것이 통일교육의 균형잡힌 이해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는 설득력을 지닐 수 있으나 양자택일의 문제일 수는 없을 것이다.

—<보 기>—

정현 : 앞으로 통일교육은 거대 담론 중심의 이념적 논의나 정치 우월주의의 시각을 지양하고 일상적 삶의 문제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어.
 현지 : 민족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의 의식구조와 가치관, 가족 관계나 생활 습관 등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
 우석 : 통일교육에서는 북한의 권력 구도나 군사 분야에 대한 이해 그리고 국제 관계의 복합적 전개 과정에 주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
 연미 : 체제 외적 관찰자의 관점에서 그동안 제기되어 온 남북한의 통일 정책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 통일 논의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 ① 정현, 현지
- ② 정현, 우석
- ③ 정현, 연미
- ④ 현지, 연미
- ⑤ 우석, 연미

- 수 고 하 셧 습 니 다 -

출 제 : 한국교육과정평가원